

Golf Champion

2005 / AUGUST

Professional Golf Magazine, U.S.A, Korea, Canada-Golf Korea



**Weetabix Women's British Open 2005
Jang Jung, 1st victory
at LPGA since 2000.**

Lee Banks First Victory at BMO Financial
Group Canadian Women's Open

Hyun Hee Moon (Star Moon) Challenges LPGA Q School
Highly Promising Future Top Ten Ranker

Moreno Valley Ranch Golf Club
New Management Turns It Into the Best Golf Course

Hyun Hee Moon

(Star Moon) Challenges LPGA Q School Highly Promising Future Top Ten Ranker



A member of KLPGA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and a top 5 ranker on the Korean money list, Hyun Hee Moon (rep. Hi-Mart) is at once composed and active for her age, and

has what it takes to be one of the best pro golfers.

Born as the youngest among three daughters to Mr. Ho Shik Moon and Mrs. Soon Suk Choe, who are running a driving school in Suwon, Korea, she

is very pleasant to be with, but above all, she boasts a superb golf skill. All her family members are sports players, including her sister who is a national player for boating in Korea, and she is not an exception.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 챔피언 십 이은정, 극적 역전 우승



7월16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스텐 메모리얼 골프장(파71,총거리6천47야드)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펼쳐진 대회 결승의 연장 접전 끝에 티파니 추디(미국)를 상대로 이은정(17세)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88년 월드컵 신, 2003년 위성미(미켈 워)를 한국계 미국인 골퍼들이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적이 있지만 한국 국적의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반 18홀에서 이은정은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범하는 등 부진한 플레이로 버디 5개를 잡아낸 추디에 4홀차로 크게 뒤져 힘든 승부를 펼쳤다.

추디는 후반 5번홀에서도 버디를 낚아 이은정의 격차를 5홀로 벌려 승리를 눈앞에 잡은 듯했다. 그러나 이은정은 후반 6-9번홀에서 3

개의 버디를 성공시키며 순식간에 2홀차로 따라잡았고, 후반 16번홀에서 약 13피트 파르 퍼트를 성공시켜 상대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결국 추디가 마지막홀에서 4피트 파르 쉬운 퍼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이들의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갔다.

기세가 오른 이은정은 연장 첫 홀에서 파 세 이브에 성공해 또다시 파 퍼트를 놓친 추디를 누르고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마무리했다.

이은정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홀차로 뒤져있을 때도 자신이 있었다. 물론 오후 9번 홀에서 롱 퍼트를 집어넣은 것이 우승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자신있게 플레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쉽게 역전당한 추디도 "내가 퍼트 실수로 고생할 동안 이은정은 후반 18홀에서 정말 좋

아졌다. 그는 압박에 매우 강한 선수다.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이은정을 칭찬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이은정(17,한영외고3)은 사실 국내 무대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선수다.

경기도 포천의 동남중학교 1학년때 처음 골프를 시작한 이은정은 그간 국내 무대에서는 올해 4월 제주도에서 열렸던 제7회 제주도지사배 주니어대회에서 8위에 올랐던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을만큼 무명의 선수였다.

그러나 이은정은 멀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내다보고 국내 대회보다는 미국 전지훈련에 충실했던 것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제이비 리라는 미국 명을 갖고 있는 이은정은 국제 주니어 골프투어(IJGT)가 정하는 15-19세 여자부 2004-2005년 순위 8위에 올랐을 만큼 미국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은정은 이번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전에 열렸던 캘리포니아 지역 예선에서 함께 5언더파, 1위로 본선에 올라 이 대회 우승을 이미 예고했었다.

이은정의 부친 이경수 씨는 "18일부터 열리는 US여자주니어챔피언십 대회와 8월 1일에 열리는 US여자아마추어챔피언십에 출전한 뒤에 귀국할 예정이다"라며 "아후 LPGA Q스쿨에 도전해 내년부터 LPGA무대에서 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